

# 차마고도 지역의 언어 접촉과 ‘차(茶)’ 어휘의 이원적 확산

— 지리언어학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노혜정\*

## 목 차

1. 서론
2. 차마고도의 시공간적 배경과 언어 접촉 지역
  - 1) 차마고도의 개념과 지리적 범위
  - 2) 접촉 지역의 민족과 언어 분포
3. ‘차(茶)’ 어휘 형성의 언어학적 분석
4. 차마고도 교역권에 따른 어휘 확산의 지리적 분석
  - 1) 남부 내륙 교역권: 자생적 la형 어휘의 수평적 확산
  - 2) 북부 및 간선 교역권: 한어계 tsha형 어휘의 수직적 침투와 교체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汪鋒·魏久喬(2017), 汪鋒(2025)의 연구 성과를 지리·역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차마고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다양한 언어 접촉 양상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마고도 교역로를 ‘남부 내륙 교역권’과 ‘북부 간선 교역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서 나타나는 ‘차(茶)’ 어휘의 분포가 실제 역사적 교역 양상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 언어에서 ‘차’를 나타내는 어휘 형식은 대체로 한어 ‘茶’로부터 전파된 것이나, 중국 경내 차마고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티베트 버마어, 타이 카다이어, 몬 크메르어 등에서는 토착 어휘형인 la형과 한어 차용형인 tsha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형(非 la형)이 공존하거나 지역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운남 남서부를 중심으로 한 남부 교역권에서는 원시 티베트 버마어 ‘일(la)’에서 유래한 la형 어휘가 민족 간 수평적으로 확산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족의 개입 이전에 형성된 자생적 교역망의 존재를 시사한다. 반면, 사천-티베트를 잇는 북부 교역권에서는 늦은 시기 한어에서 유래한 tsha형 어휘가 우세한데, 본고는 이를 송대 이후 ‘차마사(茶馬司) 설치와 관설(官設) 무역의 확장에 따른 국가 주도의 수직적 언어 전파 결과로 해석하였다. 또한, ‘茶’와 ‘茶’ 뿐만 아니라, ‘檳, 藪, 瓜, 蘆, 皋, 蘆’ 등 고대 한어의 차 관련 이명(異名)들이 소수민족 언어와 높은 음운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은, 초기 한어가 오히려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방증한다. 이는 차마고도의 언어 접촉이 일방적인 한화(漢化) 과정이 아니라, 경로와 시기에 따라 ‘토착어의 상향 전파(\*la)’와 ‘한어의 하향 전파(\*tsha)’가 중첩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키워드:** 차마고도, 차, 茶, 언어 접촉, 지리언어학, 티베트 버마어

## 1. 서론

본 연구는 ‘차(茶)’ 어휘의 기원과 초기 차 문화 전파를 중심으로 차마고도를 통해 이루어진 소수민족 언어 간 언어 접촉과 전파, 한어와 소수민족 언어의 언어 접촉과 전파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다.

孫宏開(2009)는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중국-티베트어, 알타이어 등 중국 북방 소수민족 간에 발생한 언어 접촉과 문화확산에 대해 고찰하고, 실크로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다. 중국 남방 지역 역시 다양한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차마고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언어 접촉과 문화 전파 역시 유라시아 언어와 문화 발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마고도는 중국 雲南 지역에서 생산된 ‘茶’를 티베트 등 외부와 교역하기 위해 형성된 교역로로, 唐代 이후 ‘茶’의 보급 확대와 함께 관설(官設) 무역로로 확장·발전되었다. 陳保亞(1992:7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차마고도는 세계

에서 가장 험준한 지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마방(馬幫)’이라는 독특한 운송 조직을 통해 고립된 산간 지역 간의 소식과 문화, 풍속을 연결해주었다. 이는 지형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가 필연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이 지역만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이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문화의 접촉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차마고도의 형성과 발전은 험준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접촉과 교류를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하여, 이 지역의 언어와 문화 발전에 독특한 특징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마고도에서 발생한 언어 접촉과 문화 전파에 대한 연구는 유라시아의 언어와 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차마고도 지역의 언어 연구는 주로 개별 언어의 음운 변화나 계통 분류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汪鋒·魏久喬(2017), 汪鋒(2025)은 티베트-버마어의 비교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차’ 어휘의 기원이 ‘일(la)’에서 비롯되었음을 규명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적 변이가 실제 차마고도의 구체적인 교역 경로와 역사적·지리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나타나는지에 대한 공간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汪鋒·魏久喬(2017), 汪鋒(2025)이 제시한 정밀한 어휘 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이를 차마고도의 역사적·지리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마고도의 남부 내륙 교역권(민간 교역)과 북부 간선 교역권(관설 무역)이라는 두 가지 지리적 축을 중심으로, ‘차’ 어휘의 전파 양상이 어떻게 이원화되어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차마고도의 형성과 주요 교역 노선, 민족과 언어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 연구를 통해 ‘차’의 초기 어휘 형태와 음운 대응을 비교하여, 어휘 형성의 언어학적 전제를 정리한다. 그리고 ‘차’의 어휘 분포 데이터를 지리적 교역권에 대입하여, 남부의 토착적 전파(\*la형)와 북부의 한화(漢化)적 전파(\*tsha형)이 차마고도 지역에서 어떻게 접촉하고 전파가 되었는지 분석한다.

## 2. 차마고도의 시공간적 배경과 언어 접촉 지역

### 1) 차마고도의 개념과 지리적 범위

차마고도(茶馬古道)란 ‘滇’(운남), ‘藏’(티베트), ‘川’(사천) 삼각지대(이하 滇藏川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주변으로 연결된 일종의 원정 무역 길로, 차 이외에 술, 소금, 말, 노새, 모피, 약재 등 물품의 교역뿐만 아니라 불교와 같은 정신 문화 교류의 연결고리가 되며, 단순한 이동로에서 문명 교류의 동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陳保亞, 2005:16; 陳保亞, 2010:50 등).

차마고도는 雲南 부근에서 티베트로 이어진 길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단일한 길이 아니라, 주요 노선(滇藏線, 川藏線, 靑藏線, 陝康藏線 등)과 이곳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지류로 이루어진 방대하게 엮어진 교역망이다. 차마고도는 滇藏川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네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북쪽으로는 新疆, 靑海, 甘肅 지역까지 들어가서 북방 실크로드와 합쳐지며, 동쪽으로는 廣西, 貴州, 湖南 등 지역, 서쪽으로는 昆侖山, 祁連山, 알타이산 등으로 연결되고,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까지 연결된다. 또한 남쪽과 동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국가와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다른 일부 국가와 지역까지 연결된다(陳保亞, 2005:16-17).

차마고도는 秦漢 이전부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이후 한족 중심의 차 문화의 흥기와 차 교역의 발달로 인하여 唐宋 시기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차마고도의 흥기 이전, 滇藏川 橫斷山 지대를 중심으로 이미 馬幫古道가 발달 되어 있었는데, 초기 馬幫古도의 주요 교역품은 소금이었다. 마방은 소금을 鹽井, 鹽市로부터 각 부락으로 운송하고 교역을 하였는데, 鹽井 혹은 소금의 집산지를 중심으로 橫斷山脈을 따라 점차 지역적인 교역망인 馬幫古道가 형성·발전하게 된다.<sup>1)</sup> 陳保亞(2005:17-18)에 따르면, 역사에 기록된 대표적인 馬幫古道는 大理에서 成都로 이어군은 五尺道와 靈關道, 大理에서 인도

로 이어군은 博南道 등이다. 이후 '차(茶)'가 티베트 지역으로 전해지고, 점차 티베트인의 필수 생활 용품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마방의 주요 교역품은 소금에서 차로 바뀌게 되고, 馬幫古道는 대전환기를 맞이한다. 티베트인들의 생활 지역은 대부분 차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雲南, 四川 등에서 생산된 차를 들여와야 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차 교역이 형성되었다. 마방이 차를 생산지에서 티베트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橫斷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馬幫古道는 橫斷山脈을 넘는 원정길로 점차 확장되게 된다(陳保亞(2005:18) 참고). 이렇게 형성된 馬幫古도의 원정길이 현재의 '茶馬古道'라고 명명된 교역 루트가 된 것이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관(貞觀) 15년(641년) 唐太宗때 文成 公主가 토번(吐蕃)으로出嫁하면서, 이 지역에 차 문화가 전파되었는데,<sup>2)</sup> 7세기 이후 토번의 세력 확장과 함께 차가 티베트 고원으로 유입되면서 이 험준한 도로는 주요 교역로가 된다. 이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中古 전탁 성모 글자인 '茶'가 티베트 문자에서 유성음인 'dza'인 사실과도 시기적으로 부합된다.<sup>3)</sup> '茶'는 『廣韻』 假開二平麻澄, 宅加切로 전탁(全濁) 성모 글자이다. 전탁 성모는 中古 후 시기에는 유성음 성모였으나, 近代音에서는 성조 조건에 따라 유기 무성음 혹은 무기 무성음으로 변화되는데, '茶'는 평성 글자로, 晚唐 이후 유성음 성모에서 무기 무성음 성모로 변화된다. 티베트 문자에서 '茶'가 유성음 성모라는 점은 이 지역에 '茶'가 전파된 시기가 中原 지역에서 '茶'가 무성음으로 변화되기 이전 中古 시기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唐代에 티베트인들에게 차가 전파된 이후, 이 지역에서 차는 기호품으로서 즐기는 '飲茶'가 아니라, 열량과 영양을 보충하는 필수품으로서의 '恃茶'가 되었다. 티베트 지역 민족에게 차가 중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이후 차마고도를 통한 교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1) 이상 馬幫古道와 관련된 내용은 陳保亞(2005:17-18)를 참고하였다.

2) “茶亦自文成公主入藏土也.”(索南堅贊(元), 『西藏政教史鑿錄(西藏王統記)』)

3) 티베트 문자 관련 내용은 陳保亞(1992:71)를 참고하였다.

역사적으로 ‘茶馬古道’라는 정식 명칭은 없었으며, 이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 명명된 것이다. ‘茶馬古道’는 木霽弘, 陳保亞, 徐湧濤, 李旭, 王曉松, 李林 등 여섯 명이 199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滇藏川 지역의 馬幫古道에 대한 현장 조사 이후 최초로 제기한 개념으로, 1992년 陳保亞(1992)가 발표한 논문과 木霽弘 외(1992)가 출판한 저서에서 ‘茶馬古道’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한 이후, 중국 국내외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陳保亞, 2005:16; 陳保亞, 2010:50; 陳保亞, 2023:141, 143 등).<sup>4)</sup> ‘茶馬古道’라고 명명한 이유는 기존에 이 지역에 형성되어 발달한 馬幫古道<sup>5)</sup>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은 ‘차(茶)’이며,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은 ‘말(馬)’이기 때문에, 이를 ‘茶馬古道’라고 한 것이다(陳保亞, 2023:141).

지리적으로 차마고도는 크게 두 갈래의 주요 노선으로 구분된다. 첫째, 남부 루트는 차의 원산지인 雲南省 남부에서 출발하여 미얀마, 인도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한족의 정치적 개입이 늦었으며, 傣族, 哈尼族 등 소수민족 간의 수평적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이다. 둘째, 북부 루트는 四川省 雅安이나 雲南省 大理·麗江에서 출발하여 티베트 라싸로 향하는 간선 도로이다. 이 루트는 역대 중국 왕조가 차마사(茶馬司)를 설치하고 엄격히 관리했던 ‘국가의 길’로서, 한어와 티베트어의 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공간이다. 이러한 노선의 이원적 구조는 ‘차’ 어휘의 전파 양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2) 접촉 지역의 민족과 언어 분포

雲南, 四川, 貴州 지역은 소수민족 인구수가 많고, 소수민족의 거주 면적이 넓은 지역이다. 雲南, 四川, 貴州 등 서남 지역은 원래 주로 소수민족이 거주

4) 陳保亞(1992), 「論茶馬古道的歷史地位」, 『思想戰線』第1期.

木霽弘·陳保亞·李旭·徐湧濤·王曉松·李林(1992), 『滇藏川“大三角”文化探秘』, 雲南大學出版社.

5) 古鹽道 혹은 鹽馬古道라고 불리기도 한다(陳保亞(2023:141) 참고).

하고 있던 지역으로, 한족은 4세기에 陝西 지역에서 다량의 이주가 발생한 이래, 14세기에서 17세기 明代에 이르러서 중국 전역에서 100만 이상 인구가 이주하며 본격적으로 거주하게 된다.<sup>6)</sup>

특히 雲南, 四川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수민족의 분포 비율이 높으며, 거주하고 있는 민족의 구성도 매우 다양한 지역으로, 차마고도의 중심인 雲南, 四川 지역은 소수민족이 분포하고 있는 민족의 언어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지역이다. 雲南 지역만 해도 2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분포 지역은 전체 면적의 75%이다. 雲南 지역에는 중국-티베트어족과 오스트로아시아어족에 속하는 44종의 소수민족 언어가 있으며, 인구 10만 이상인 주요 민족 언어는 彝語, 白語, 哈尼語, 傣語, 壯語 등이다.<sup>7)</sup> 이와 같은 민족·언어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소수민족 언어는 다음과 같다.

(예) 차마고도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

가. 티베트-버마어(藏緬語)

- a. 이어군(彝語支): 彝語, 白語, 哈尼語, 傣語, 納西語, 拉祜語 등
- b. 징포어군(景頗語支): 景頗語, 獨龍語 등
- c. 버마어군(緬語支): 阿昌語 등
- d. 치양어(羌語支): 普米語 등

나. 타이-카다이어(크라-다이어)(侗台語(壯侗語))

- a. 다이어[壯傣語支]: 壯語, 傣語, 布依語 등
- b. 크라이어[仡央語支]: 布央語, 普標語, 拉基語, 仡佬語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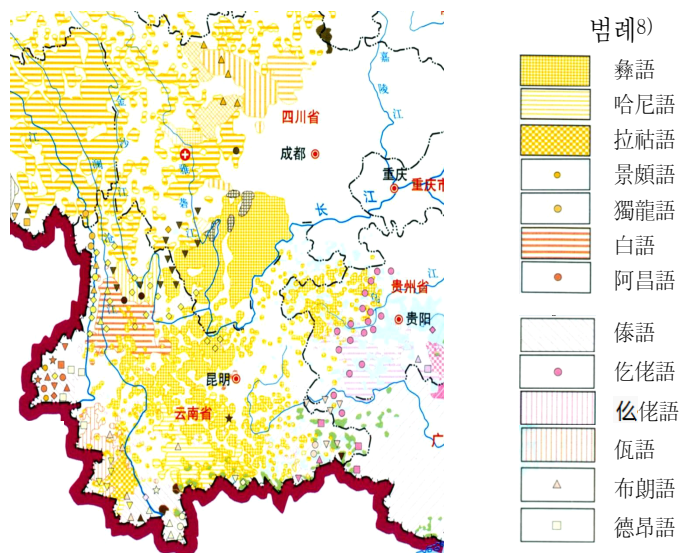
다. 오스트로아시아어(족)(南亞語)

몬 크메르어: 布朗語, 佉語 등

6) LaPolla(2010: 6862)를 참고하였다.

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2: 228-289)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언어 분포를 언어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은 시노-티베트 어족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남부 접경지대에는 타이-카다이어족과 오스트로아시아어족(몬-크메르어파)이 혼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雲南 남부의 차생산지(西雙版納 등)는 타이-카다이어족인 다이족과 몬-크메르어족인 부랑족이 집단 거주하며 ‘토착 차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북부의 중계 무역지(大理, 리장, 상그릴라)는 티베트-버마어족(이족, 나시족, 티베트족)과 한족의 언어가 교차하는 ‘언어 접촉의 최전선’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단일한 언어권이 아니라, 마방(馬幫)의 이동 경로를 따라 여러 어족이 벨트 모양으로 중첩된 복합적인 언어 접촉 지대(Contact Zone)로 이해해야 한다.



<그림1> 차마고도 지역의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의 분포(부분)<sup>8)</sup>

8) 본문에서 언급되는 주요 언어만 발췌하였다.

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2), 『中國語言地圖集: 少數民族語言卷』, 商務印書館.

### 3. '차(茶)' 어휘 형성의 언어학적 분석

'차(茶)'의 원산지에 대한 정설은 아직 없지만, 대체적으로 중국이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며(周振鶴·遊汝杰(1986[2015]:143), 陳宗懋, 1992[2005]:6),<sup>10)</sup> 세계 언어에서 '차'를 나타내는 어휘 형식은 한어 '茶' \*alra>dræ와 직·간접적으로 어원 관계가 있다(Sagart, 1999). Sagart(1999), Matisoff(2003), Schuessler(2007) 등 많은 학자들은 한어의 '茶'와 티베트 버마어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이들은 한어 '茶'가 원시 티베트 버마어에서 '잎'을 나타내는 어휘 형식 \*la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雲南의 이어군(彝語支) 일부 언어 중 '차'를 나타내는 단어는 '잎'을 나타내는 티베트 버마어 \*la를 반영한다.<sup>11)</sup>

〈표1〉 이어군(彝語支) 언어에 나타나는 '차'<sup>12)</sup>

언어	'차(tea)'	출처
Lalo	lâq-phiq	Björverud(1994)
Nusu (Central)	la <sup>31</sup> tea <sup>33</sup>	黃布凡(1992)
Yi (Liangshan)	la <sup>55</sup>	Ma 등(2008)
Yi (Nanhua)	lo <sup>21</sup>	黃布凡(1992)

10) 周振鶴·遊汝杰(1986[2015]:143-144)는 차의 원산지는 雲南이며, 차의 인공 재배는 巴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陳宗懋(1992[2005]:6)는 Wallich(1892), Wilson(1892), Brelschneider(1892), Genine(1893), 傑姆哈捷(1960), 志村橋·橋本實(미상) 등 식물학자들의 세포유전학, 식물형태학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견해이다. 志村橋·橋本實는 다년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분석에 근거하여, 차의 원산지가 구체적으로 중국의 雲南과 四川 일대라고 밝혔다고 한다.

11) 언어 예의 출처는 黃布凡(1992)이며, STEDT Database(<https://stedt.berkeley.edu/~stedt/cgi/rootcanal.pl/gnis?t=left>, 검색일: 2024.02.19)를 참고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12) 이 표의 언어 자료는 STEDT database(<http://stedt.berkeley.edu/search>, 검색일: 2024.02.19)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출처 중 중국 인명은 원문의 영문 표기를 본 고에서 중국어로 바꾸어 옮긴 것이다.

Lahu (Lancang)	lɑ <sup>31</sup>	黃布凡(1992)
Lahu (Yellow)	la <sup>5</sup>	常竑恩(1986)
Lisu (Northern)	la <sup>21</sup> tea <sup>55</sup>	Bradley(1994)
Lisu (Central)	lá <sup>5</sup> -chyá <sup>3</sup>	Fraser(1922)
Yi (Sani)	lɔ <sup>11</sup>	黃布凡(1992)
Hani (Lüchun)	la <sup>31</sup> bɛ <sup>33</sup>	黃布凡(1992)
Hani (Gelanghe)	lɔ <sup>55</sup> bɔ <sup>31</sup>	李永燧(1986)
Hani (Mojiang)	lɔ <sup>31</sup> khɛ <sup>55</sup>	黃布凡(1992)
Sila	lɑ <sup>33</sup>	Kato(2008)

‘잎’을 나타내는 티베트 버마어의 예는 아래와 같다.

<표2> 티베트 버마어 언어에 나타나는 ‘잎’<sup>13)</sup>

언어	‘잎(leaf)’	출처
Magar	hla	Benedict(1972)
Vayu	lo	Benedict(1972)
Chepang	lo	Benedict(1972)
Dhimal	hla-ba	Benedict(1972)
Mikir	lo	Benedict(1972)
Meithei	la	Marrison(1967)
Kayah	le <sup>11</sup>	Luangthongkum(2013)
Pwo(Northern)	la <sup>33</sup>	Luangthongkum(2013)
Southern Muji	ɛi <sup>33</sup> ɬa <sup>55</sup>	Pelkey(2011)

Benedict(1972:23, 146)는 티베트 버마어에 나타나는 ‘잎’과 ‘차’의 형식을 제시하며 이들 단어에 관계가 있음에 주목하였다.<sup>14)</sup> Matisoff(2003)는

13) 이 표의 언어 자료 중 Marrison(1967), Luangthongkum(2013), Pelkey(2011)는

STEDT database를 참고한 것이다. STEDT database 출처와 검색일은 위와 같다.

14) Benedict(1972:23, 146)는 ‘잎’ 예를 나열하며, ‘차’의 형태를 참고하라고 제시한 것에

Benedict(1972)의 견해를 이어, '차'라는 단어는 '잎'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원시 티베트-버마어에 '차'를 의미하는 어휘 형식을 단독으로 재구하지 않고 '잎'과 동일한 형식인 \*s-la로 재구하고, '차'와 '잎'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동일 항목에 함께 열거하였다(#786 PTB \*s-la LEAF / TEA / FLAT THING).<sup>15)</sup> 汪鋒·魏久喬(2017)는 티베트 버마어 언어들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와 이들의 음운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원시 티베트 버마어의 '잎'에서 '차'로의 의미 전환과 언어 간 전파 과정, 어휘 교체의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티베트-버마어의 '잎'→'차' 의미 전환과 어휘 교체 모형이다.<sup>16)</sup>

〈표3〉 티베트-버마어의 '잎'→'차' 의미 전환과 어휘 교체 모형<sup>17)</sup>

		'잎'		'차'	대표 언어
T1				*s-la	PTB
T2				*s-la > hla	Magar, Dhmal
T3	⇒	*r-pak *r-pak > pha <sup>231</sup>	→	la	이어 라후어
T4		*r-pak > phq <sup>7</sup>		la	이어
T4'	⇒	lap		pha <sup>231</sup>	징포어

미루어 판단한 것이다. 그가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았다.

15) <https://stedt.berkeley.edu/~stedt/cgi/rootcanal.pl/etymon/786>(검색일: 2024.02.19)

16) 언어들의 원시어 재구 방법과 음운 대응, 음운 변화의 구체적인 예와 분석은 汪鋒(2013), 汪鋒·魏久喬(2017)를 참고할 수 있다.

17) 이 모형은 汪鋒·魏久喬(2017:67-68)에서 제시한 모형을 가독성을 고려하여 원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본고에서 추가·수정한 것이다. T는 시간, 화살표(→)는 의미 전환, 이중 화살표(⇒)는 새로운 형식의 출현을 의미한다. 언어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므로, 간 시간 단계 간 음운 변화나 의미 전환 과정에 과도기가 존재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따로 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원시 티베트 버마어 \*s-la의 접두사 \*s-의 h-로의 변화는 티베트 버마어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며, 티베트 문자의 s-와 로로 버마어의 h- 혹은 무성음화 자음이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周德才, 2005:16)<sup>18</sup>. Magar어 ‘잎’ hla와 Dhmal어 ‘잎’ hla-ba가 이 단계의 대표적인 예이다(T2).

汪鋒(2013:107)은 현대 이어 방언에 근거하여, 현대 이어 ‘차’의 원시 이어 형식을 \*l<sup>9</sup>로 재구하였다.<sup>19</sup> ‘차’를 의미하는 새로운 어휘 형식인 \*la는 로로 버마어<sup>20</sup>의 창신이다(汪鋒·魏久喬, 2017:65). 티베트 버마어에서 ‘잎’을 의미하는 단어가 ‘차’로 의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잎’을 의미하는 단어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잎’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어인 \*r-pak이 출현하게 된다. Matisoff(2003:317)는 원시 티베트 버마어 ‘잎’을 \*s-la(#786 PTB)외에, \*r-pak으로도 재구하였다(#821 PTB \*r-pak LEAF / LEAF LIKE PART / FLAT OBJECT).<sup>21</sup> Lambichong어 ‘잎’ lă phak, 버마문 ‘잎’ phak, 라후어(黑) ‘잎’ á-phá? 등이 이를 반영하는 예이다(T3).<sup>22</sup>

현대 이어 방언에서 ‘잎’을 나타내는 어휘 형식의 성모는 대부분 양순음 p이다. 汪鋒(2013:74)는 현대 이어 방언에 근거하여 원시 이어를 ‘잎’ \*pha<sup>7</sup>로 재구하였는데, 이는 \*r-pak > pha<sup>7</sup>의 변화 단계를 반영하는 예이다(T4).

다음은 현대 이어 방언에 나타나는 ‘차’와 ‘잎’의 어휘 형태이다.

18) (예) (과실)이다[熟(果子)]: 티베트문 smin, 버마문 hman<sup>1</sup>

이삭[穗]: 티베트문 sn̥e, 버마어 h̃<sup>22</sup>

19) Bradley(1979)는 원시 이어 ‘차’를 \*la<sup>1</sup>로 재구하였다(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검색일: 2024.02.19)를 재인용함.

20) 로로 버마어는 편의상 STEDT database의 분류 중 영문 표기인 Lolo-Burmese를 따랐다. 중국어로는 彝緬語로, 영어로 Yi-mian, Mian-Yi 또는 Burmic라고 하기도 한다. 영어권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Lolo’는 사실 이족에 대한 멸칭이기 때문에, Yi로 나타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21) Benedict(1972)는 \*pak, Weidert(1987)는 \*pak/\*pwak으로 재구하였다(STEDT database 참고).

22) Lambichong어, 버마문의 출처는 Benedict(1972), 라후어(黑)의 출처는 Matisoff(1972, 1978)이다(STEDT database 참고). Matisoff(2003:317)는 징포어의 ‘잎’을 phá?라고 제시하였으나, STEDT database는 해당 어휘의 의미를 ‘tea-plant’라고 표기하고 있다.

<표4> 현대 이어 방언에 나타나는 '차'와 '잎'의 어휘 형태<sup>23)</sup>

단어	喜德	武定	江城	巍山	撒尼	南華
'차'	la <sup>55</sup>	lu <sup>55</sup>	lo <sup>21</sup>	la <sup>21</sup>	la <sup>11</sup>	lo <sup>21</sup>
'잎'	(tɕhi <sup>34</sup> tɕhi <sup>33</sup> )	pha <sup>55</sup>	phie <sup>21</sup>	phɿ <sup>21</sup>	phe <sup>21</sup> (to <sup>11</sup> )	phe <sup>55</sup>

한편, T4 단계에서 징포어 등 언어는 '잎' pha<sup>231</sup>에서 '차' pha<sup>231</sup>로의 의미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공백에 '잎'을 나타내는 새로운 형식 \*lap이 출현하게 된다.<sup>24)25)</sup> 징포어 '잎' lap<sup>31</sup>, '차' pha<sup>231</sup> lap<sup>31</sup>(黃布凡, 1992), Sak어 '차' la phá?(Huziwara, 2008), Kanauri어 '잎' lab(Benedict, 1972), 서 티베트어 '잎' lob-ma(Benedict, 1972) 등이 이 단계를 반영하는 예이다(T4').

汪鋒·魏久喬(2017:67)은 Matisoff(2003)가 제시한 '잎'의 원시 티베트 버마어 형식인 \*r-pak과 원시 이어 형식인 \*pha<sup>7</sup>가 음운적으로 계승 관계를 이루며,<sup>26)</sup> 핵심어 '잎'이 원시 티베트 버마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휘 형식으로 동시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s-la가 먼저 출현한 후 새로운 형식인 \*r-pak이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원시 티베트 버마어의 '잎'과 '차'의 의미 전환과 새로운 단어의 출현에 대한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TB:           \*s-la '잎' → \*la '차'  
                   ⇒ \*r-pak '잎'

23) 이 표는 汪鋒·魏久喬(2017)의 65쪽과 66쪽의 표를 참고하여 본고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24) 원시 티베트 버마어 '잎' \*lap은 Matisoff(2003:336)를 참고하였다.  
 25) 汪鋒·魏久喬(2017:67)은 이러한 형식이 상고 한어 '잎(葉)' \*ljap(Baxter, 1992)과 유사함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Baxter&Sagart(2014)는 후속 연구에서 상고 한어 '잎(葉)'의 재구음을 개음을 삭제하고 \*lap {l[a]p}로 재구하였는데, 이들의 상고 한어 재구음 수정안은 원시 티베트 버마어 형식과 더욱 유사해 보인다.  
 26) 원문에서 \*r-pak의 약화 형식인 \*rwak에 대한 서술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 4. 차마고도 교역권에 따른 어휘 확산의 지리적 분석

##### 1) 남부 내륙 교역권: 자생적 la형 어휘의 수평적 확산

중국 서남 지역은 티베트 버마어, 타이 카다이어, 오스트로아시아어 등 여러 민족 언어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소수민족 언어 간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하고 깊은 언어 접촉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차’의 어휘 형태는 언어 간 언어계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la류 형식인 경우가 많다.<sup>27)</sup>

- (예) a. [티베트 버마어] 이어(彝語): 喜德 la<sup>55</sup>          南澗 la<sup>21</sup>  
 b. [타이 카다이어] 다이어(傣語): 西雙版納 la<sup>4</sup>  
 c. [몬 크메르어] 부랑어(布朗語): 新曼俄 la<sup>4</sup>    關雙 la<sup>2</sup>

여러 언어계통의 언어들 사이에서 유사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차’의 언어 접촉 순서와 전과 관계에 대해서는 학계에 여러 견해가 있다. 李炳澤(2002:93-94)은 다이족은 百越 계통에 속하지만 ‘차’의 어휘 형식은 다른 百越 민족과는 다르며, 오히려 雲南에 함께 분포하는 주변 민족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과거 다이족이 雲南 지역으로 이주한 이후 주변 민족의 영향을 받아 식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다이어의 ‘차’는 雲南 주변 민족 언어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보았다. 李錦芳(2002:101-103)은 이와는 반대로 다이어의 ‘차’가 주변 민족 언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그는 티베트-버마어과, 몬-크메르어과 언어 중 ‘차’가 la, le류로 나타나는 언어들은 대부분 雲南 지역에 분포하는 언어들임을 지적하며, 이들 언어에 나타나는 ‘차’ 어휘 형식은

27) 언어 예의 출처는 이어는 陳士林 등(1985:249), 부랑어는 李道勇 등(1986:100), 다이어는 喻翠容(1980:119)이다(汪鋒·魏久喬(2017:64) 재인용).

다이어 '차' la<sup>4</sup>를 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sup>28)</sup> 汪鋒·魏久喬(2017)는 단순하게 어휘의 음운 유사성만을 고려한 분석에 대해 비판하며, 다양한 언어 예를 근거로 언어 간 음운 대응, 언어 비교 방법, 언어 지리 분포 특징 등 방법을 활용하여 '차' \*la류 형식의 소수민족 언어 간 언어 접촉과 전파 순서에 대해 밝혔다. 그는 원시 티베트 버마어 '잎' \*s-la가 로로 버마어(이어)에서 '차' \*la로 의미가 변하였고, 이어 '차' \*la가 타이 카다이어과 서남 타이어군(台語西南支)에서 분화된 다이어로 차용되었으며, 다이어(西雙版納)는 다시 지리적으로 밀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오스트로아시아어족 몬 크메르어과 부랑어, 와어(佤語) 등으로 차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다이어 각 방언에서 '차'를 나타내는 형식은 la형, tsha형, la/tsha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5> 다이어 각 방언에 나타나는 '잎', '차', '차잎'<sup>29)</sup>

	'잎'	'차'	'차잎'	출처	비고
西雙版納	bai <sup>1</sup> , fə <sup>1</sup> , tɔŋ <sup>1</sup>	la <sup>4</sup>	-	喻翠容(1980)	la형
孟連	va <sup>6</sup>	la <sup>4</sup>	fə <sup>1</sup> l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la형
元江	vau <sup>1</sup>	la <sup>4</sup>	vau <sup>1</sup> l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la형
綠春	vai <sup>2</sup> fu <sup>1</sup>	lɔ <sup>4</sup>	vai <sup>2</sup> lɔ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la형
元陽	vau <sup>1</sup>	nam <sup>4</sup> fu <sup>1</sup> la <sup>4</sup>	fu <sup>1</sup> l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la형
景洪	bai <sup>1</sup> , fə <sup>1</sup>	nam <sup>4</sup> la <sup>4</sup>	je <sup>5</sup> l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la형
德宏	mau <sup>6</sup>	lep <sup>3</sup> , fə <sup>1</sup>	-	喻翠容(1980)	la형
金平	vau <sup>1</sup>	la <sup>4</sup> , tɛ <sup>2</sup>	vau <sup>1</sup> l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la/tsha형
芒市	mau <sup>6</sup>	lep <sup>3</sup> , ja <sup>3</sup> ju <sup>4</sup>	fə <sup>1</sup> lep <sup>3</sup>	周耀文·羅美珍(2001)	la/tsha형
武定	vei <sup>1</sup> , fə <sup>1</sup>	tsha <sup>4</sup>	vei <sup>1</sup> tsh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tsha형
馬關	bau <sup>1</sup>	tsha <sup>4</sup>	bau <sup>1</sup> tsha <sup>4</sup>	周耀文·羅美珍(2001)	tsha형

28) 이상 李炳澤(2002)과 李錦芳(2002)은 汪鋒·魏久喬(2017:64)을 재인용한 것이다.

원시 타이어(台語)의 ‘차’에 대해 李方桂(1976)와 Pittayaporn(2009)는 각각 ‘차’ \*ja<sup>A</sup>, ‘차’ \*ja :<sup>A</sup>로 재구성하였는데, 모두 非 la형으로 재구성하였다. 汪鋒·魏久喬(2017:74)은 이들의 원시 타이어 재구성이 非 la형이며, 타이 카다이어의 다른 언어 중 다이어만 ‘차’가 la형으로 나타나고, 기타 대부분 언어들은 非 la형이기 때문에, 다이어의 ‘차’ la형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표6〉 타이 카다이어 언어에 나타나는 ‘차’<sup>30)</sup>

	다이어 (시쌍)	다이어 (더홍)	짱어	부이어	린가오어	둥어	거라오어	수이어	마오난어	리어
‘차’	la <sup>4</sup>	leŋ <sup>3</sup> , fə <sup>1</sup>	ea <sup>2</sup>	ea <sup>2</sup>	sa <sup>2</sup>	ee <sup>2</sup>	tsa <sup>2</sup>	tja <sup>2</sup>	tsa <sup>2</sup>	de <sup>1</sup>
비고	la형	la형	非 la형	非 la형	非 la형	非 la형	非 la형 (tsa형)	非 la형 (tsa형)	非 la형 (tsa형)	非 la형

또한, 汪鋒·魏久喬(2017)의 내부 비교법을 이용한 언어들의 성조 대응 상황 분석 결과에 근거하면, 다이어 각 방언에 나타나는 ‘차’ la형 단어는 모두 4調로, 調類는 일치하지만, 방언들 간에 調値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이어 ‘차’ la형의 차용 시기는 다이어가 서남 타이어군에서 분화된 이후, 다이어 방언이 형성되기 이전에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랑어, 와어 등이 속한 몬 크메르어에 나타나는 ‘차’의 어휘 형식은 크게 la형, tcha형, miəm형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중국 경내 몬 크메르어의 ‘차’는 la형과 非 la형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29) 汪鋒·魏久喬(2017)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30) 타이 카다이어의 예의 출처는 中央民族學院少數民族語言研究所第五研究室編(1985)의 『壯侗語族語言詞彙集』(中央民族學院出版社)이다. 본고는 汪鋒·魏久喬(2017:69)가 인용한 내용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표로 재구성하였다. 비고는 본고에서 추가한 것이다.

<표7> 중국 경내 몬 크메르어에 나타나는 '차'<sup>31)</sup>

	南謙	曼買	關雙	中課	南虎	茶葉箐	班洪	馬散	岩帥
'차'	la	la	la <sup>2</sup>	la	za zu	ʒa <sup>51</sup> ʒu <sup>51</sup>	tɕaʔ	la tɕha	la tɕhaʔ
비고	la형	la형	la형	la형	非 la형	非 la형	非 la형(tɕha)	la형/ 非 la형(tɕha)	la형/ 非 la형(tɕha)

몬 크메르어에 나타나는 '차'의 두 가지 어휘 형식은 지리적인 분포 특징을 보인다. 와어는 雲南 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la형은 南謙, 曼買, 關雙, 中課 등 雲南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非 la형은 南虎, 茶葉箐, 班洪 등 雲南 북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la형과 非 la형 두 가지 형식이 모두 나타나는 馬散와 岩帥은 이 두 지역의 중간 지역에 위치한다. 汪鋒·魏久喬(2017:70-71)은 언어 분포 지도 분석을 통해 중국 경내외 몬 크메르어에 나타나는 '차'의 어휘 형식은 하위 언어 계통 분류보다 지역적인 분포 특징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국 경내 몬 크메르어 '차' la형의 분포 지역이 西雙版納 다이어 분포 지역과 인접하며, 이들 지역에서 부랑족과 다이어족이 밀접한 접촉을 하여, 西雙版納에 거주하는 부랑족이 대부분의 다이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점에 주목하며, '차' la형의 출현이 다이어와 몬 크메르어의 언어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접촉과 차용의 방향은 이 지역에서 다이어의 분포 지역이 광범위하고, 다이어에서 '차' la형 출현 시기가 비교적 이르며, 다른 몬 크메르어에 나타나는 '차' miəm형이 중국 경내 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근거하면, 몬 크메르어가 다이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汪鋒·魏久喬, 2017:72).

이상과 같은 '차' \*la의 언어 간 언어 접촉과 전파 과정에 대한 고찰을 모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언어 예의 출처는 Diffloth(1977)이다. 본고는 汪鋒·魏久喬(2017:69)가 인용한 내용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표로 재구성하였다. 비고는 본고에서 추가한 것이다.

(예) ‘차’ \*la형의 언어 간 언어 접촉과 전파 과정 I<sup>32)</sup>

이어(ST-TB) → 한어(ST)

↓

다이어(TK)

↓

부랑어, 와어(AA-MK)

‘차’ \*la형의 전파 과정을 살펴 보면, 이어→다이어→몬 크메르어로 전파 되는데, 이상의 소수민족 언어 자료들은 모두 雲南 남서부(시창반나, 푸얼) 등 차 생산지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족의 영향력이 미치기 전, 소수민족 간의 독자적인 차 네트워크가 존재한 것으로, 남부 내륙 교역권에서 발생한 ‘토착 차 문화 교류’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2) 북부 및 간선 교역권: 한어계 tsha형 어휘의 수직적 침투와 교체

차마고도 지역에서 한어와 소수민족 언어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한어의 ‘차’와 소수민족 언어의 ‘차’는 깊고 복잡한 언어 접촉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차마고도 지역에서 한어와 소수민족 언어의 접촉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시기와 경로에 따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남부 내륙 교역권이 소수민족 간의 자생적 교류를 통해 \*la형 어휘를 수평적으로 확산시켰다면, 북부 및 간선 교역권은 중화제국의 정치적 개입과 관설(官設) 무역의 확장을 통해 한어계 tsha형 어휘가 수직적으로 침투하는 양상을 띤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족의 ‘茶’를 마시는 문화는 六朝 시기 巴蜀 지역을

32) 아래 화살표(↓)는 다른 언어계통 간 차용을 나타내고, 옆 화살표(→/←)는 동일 언어 계통 간 차용을 나타낸다. 알파벳은 언어계통의 영문 표기 약자이다(예: ST(Sino-Tibetan)).

중심으로 시작되어, 唐代에 중원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陳宗懋 2005:11-19). 李肇의 『唐國史補·卷下』, 樊綽의 『雲南志·卷七』, 封演的 『封氏聞見記·卷六』 등의 기록은 늦어도 唐代 이전에 이미 雲南 지역을 중심으로 '茶'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으며, 이후 중국과 주변 지역에 '茶' 문화가 보급되었음을 보여준다.<sup>33)</sup>

常魯公使西蕃，烹茶帳中。贊普問曰，“此爲何物？”魯公曰：“滌煩療渴，所謂茶也。”贊普曰：“我此亦有。”遂命出之，以指曰：“此壽州者，此舒州者，此顧渚者，此蕪門者，此昌明者，此邕湖者。”(李肇，『唐國史補·卷下』)

茶出銀生城界諸山，散收，無采造法。蒙舍蠻以椒，薑，桂和烹而飲之。(樊綽，『雲南志·卷七』)

(飲茶)……始自中地，流於塞外。往年回鶻入朝，大驅名馬市茶而歸，亦足怪焉。(封演，『封氏聞見記·卷六』)

이러한 차 문화의 보편화는 언어적 전파로 이어졌다. 티베트-버마어, 타이-카다이어, 몬-크메르어 등 중국 경내의 많은 소수민족 언어들은 자생적인 \*la형 어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유입된 한어의 영향으로 非 la형(즉, tsha형) 어휘를 차용하거나 병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차를 나타내는 티베트 문자 dza, 티베트어(라싸) tcha<sup>13</sup>, 두룽어(獨龍語) tca<sup>55</sup>, 푸미어(Jiulong) dze<sup>35</sup>, rGyalrong(Maerkang) tsha 등 여러 티베트 버마어의 언어뿐만 아니라, 타이 카다이어, 몬 크메르어 등 언어에서도 차를 나타내는 어휘가 非 la형(ta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소수민족 언어의 차는 모두 늦은 시기 한어의 '茶'에서 차용된 것이다.<sup>34)35)</sup> 이는 한어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친 시기

33) 陳保亞(2016:95)를 참고함.

34) 汪鋒·魏久喬(2017)는 윈시 바이어(白語)도 한어를 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35) 한어에서 차용된 소수민족 언어의 非 la형(ta형) 예는 앞의 고찰에서 la형과 함께 비교 제시 되었으므로, 본 절에서는 다시 제시하지 않는다.

혹은 지역에서 발생한 ‘어휘 교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티베트 버마어, 타이 카다이어, 몬 크메르어 등 주변 여러 소수민족 언어로 전파된 한어 ‘차’의 기원은 원시 티베트 버마어 \*la ‘차’이다 (Sagart(1999), Matisoff(2003), Schuessler(2007), 汪鋒·魏久喬(2017) 등). Sagart(1999)는 한어의 ‘茶’를 상고 한어 \*<sup>h</sup>lra(> 중고 한어 dræ)로 재구하였는데,<sup>36)</sup> 그는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차 문화의 발원지가 巴蜀 지역이며, 중국의 飲茶 풍속이 東漢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이 지역에 분포하는 티베트 버마어 ‘차’ 혹은 ‘잎’을 나타내는 어휘 형식이 la형이기 때문에, 한어의 ‘茶’ \*alra는 원시 티베트 버마어 \*la ‘차’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분석은 어근 \*la의 ‘余’(GSR 82) 해성 계열과도 부합된다고 보았다.

‘茶’ 글자의 출현 시기가 비교적 늦기 때문에, Sagart(1999)가 근거로 한 초기 문헌 기록은 ‘茶’에 대한 것이며, Sagart(1999)는 ‘茶’와 ‘茶’를 동일한 글자로 전제한 것이다. 周振鶴·遊汝傑(1986[2015]:143)은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茶’의 의미, 城步 金水 미아오어(苗語) da, 貴州 이어 da-tu, 福建 莆仙 方言 tu 등 한어 방언과 소수민족 언어, 한어 ‘茶’와 ‘茶’의 음운 형식과 변천 등에 근거하여, ‘茶’와 ‘茶’는 같은 명칭의 같은 사물을 가지키는 글자라고 보았다.<sup>37)</sup>

현대 한어에서 차를 지칭하는 대표 한자는 ‘茶’이지만, ‘茶’ 이전에 역사적으로 한어에서 차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다. 많은 문헌에 ‘茶’, ‘茶’ 이외에 ‘檟, 設, 茗, 葍, 檟, 訛, 妣, 葍訛, 茶草, 選, 瓜蘆, 臯蘆, 過羅, 枸羅’ 등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周振鶴·遊汝傑(1986[2015]:143), 陳宗懋(1992[2005]:1), 李錦芳(2002:101-103)). 唐代 陸羽의 『茶經·一之源』에는 ‘차’를 가리키는 5가지 다른 명칭 ‘茶, 檟, 設, 茗, 葍’이 기록되어 있다.

36) Baxter & Sagart(2014)에서는 ‘茶’의 재구음을 \*lra로 수정하였다.

37) ‘茶’와 ‘茶’가 모두 차를 가리키는 명칭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 견해 차이가 있다. 汪鋒·魏久喬(2017:16)는 한어 ‘차’의 기원에 대한 Sagart(1999)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만, ‘茶’와 ‘茶’의 교체에 대한 해석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茶者, 南方之嘉木也, 一尺二尺, 乃至數十尺. 其巴山峽川有兩人合抱者, 伐而掇之, 其樹如瓜蘆, 葉如梔子, 花如白薔薇, 實如栝欄, 葉如丁香, 根如胡桃. 其字或從草, 或從木, 或草木並. 其名一曰茶, 二曰檟, 三曰設, 四曰茗, 五曰薺. (『茶經·一之源』)

周振鶴·遊汝傑(1986[2015]:143)은 明代 馮時可 『茶錄』의 “設”은 서남 방언이다(設則西蜀語)라는 기록을 예로 들며, 고대에 차를 가리키는 ‘檟, 設, 茗, 薺’ 등 여러 명칭들이 방언 혹은 차의 여러 품종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楊雄의 『方言』에 ‘設’은 서남 지역 방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西蜀南人謂茶曰設), 郭璞의 『爾雅注』에는 “檟는 ‘苦茶’이고, ‘設’는 蜀西南人이 차를 가리키는 말이며, 일찍 탄 차는 ‘茶’, 늦게 탄 차는 ‘茗’ 혹은 ‘薺’이라고 하고, 蜀人들은 이를 ‘苦茶’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8)</sup>

檟, 苦茶. (『爾雅』)  
今呼早取爲茶, 晚取爲茗, 或一曰薺, 蜀人名之苦茶.(『爾雅注』)  
蜀西南人謂茶曰設. (『方言』)

또한, 『桐君錄』, 『南越志』, 『本草』 등에 차를 가리키는 다른 명칭인 ‘瓜蘆’, ‘臯蘆’ 등이 있는데, 이는 남방 지역, 이민족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라는 문헌 기록이 있다.

南方有瓜蘆木, 亦似茗, 至苦澀, 取爲屑, 煮飲, 亦通夜不眠. (『桐君錄』)  
龍川縣有臯蘆, 名瓜蘆, 葉似茗, 土人謂之過羅, 或曰物羅, 皆夷語也. (『南越志』)  
臯蘆, 一名瓜蘆, 今南人用之, 名曰苦登, 葉似茗. (『本草』)

李錦芳(2005:78)는 원시 타이 카다이어 ‘차’는 \*gla(> \*kda)로 재구할 수 있는데, 복성모 \*gl-가 타이 카다이어 제언어에서 성모 k-와 l-로 각각 반영된다고 하며, ‘檟, 瓜蘆, 臯蘆, 過羅, 栲羅’ 등 초기 한어 ‘차’의異名과 타이 카다

38) 周公雲: 「檟, 苦茶.」, 楊執戟雲: 「蜀西南人謂茶曰設」, 郭弘農雲: 「早取爲茶, 晚取爲茗, 或一曰薺耳.」

이어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예) 타이 카다이어 ‘차’의 원시 형식과 현대 타이 카다이어의 대응(李錦芳, 2005:78)

*gla → *kla →	kja2(德保壯語), kjau <sup>31</sup> (雅郎布央語) khau <sup>35</sup> (紅豐侂佬), kho <sup>55</sup> (比貢侂佬語) kə <sup>33</sup> (木佬), ku <sup>35</sup> (紅侂佬), kau <sup>33</sup> (白侂佬) la4(傣語), la <sup>33</sup> (普標語), lu <sup>24</sup> (木佬語)
---------------	---

‘檳, 瓜蘆, 臯蘆, 過羅, 枸羅’ 글자들의 상고 한어 재구음은 원시 타이 카다이어 \*gla(> \*kla)와 음운적으로 유사성의 띄고 있다.

(예) 초기 한어 ‘차’의 異名<sup>39)</sup>

檳 kra : ?  
瓜蘆 k<sup>w</sup>ra : ra :  
臯蘆 ku : ra :  
過羅 klo : l ra : l  
枸羅 ko : ra : l

‘瓜蘆, 臯蘆, 過羅, 枸羅’의 상고 재구음에 근거하면, 첫음절 성모는 모두 설근음 k-이고, 두번째 음절 성모는 l-인데, 이는 복성모인 \*gla(> \*kla)가 두 음절로 나뉘어 각 음절의 성모에 각각 대응되는 형태를 띤다. 李錦芳(2005:79)는 문헌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의 여러 異名은 한어의 원시 타이 카다이어 음역어라고 지적하였다.

여러 문헌에 서남 지역 사람들이 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기록된 ‘護’도 소

39) 재구음은 鄭張尙芳의 상고음 체계에 근거한다.

수민족 언어와 음운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護’의 상고 재구음은 \*hljed이다. 앞에서 고찰한 원시 티베트 버마어 ‘차/잎’의 재구음이 \*s-la였으며, 원시 티베트 버마어의 접두사 s- > h 변화가 발생하여, 차 어휘 형식의 형성과 발달 단계에서 \*s-la > hla가 있었다는 점은 음운의 유사성 측면에서 한어 문헌에 서남 방언이라고 기록된 ‘護’와 이 지역에 분포하던 원시 티베트 버마어와의 언어 접촉에 대해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茶’와 ‘茶’ 뿐만 아니라, 한어에서 차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은 한어와 소수민족 언어에서 ‘차’의 전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언어 접촉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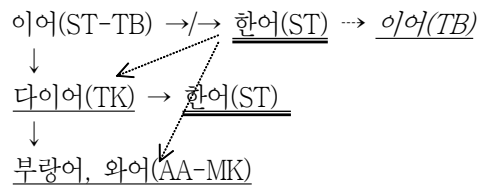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sup>41)</sup> 다이어 각 방언 중 金平(la/ʃha형), 芒市(la/ʃha형), 武定(ʃha형), 馬關(ʃha형), 타이 카다이어 언어의 좡어(ʃha형), 거라오어(ʃha형), 수이어(ʃha형), 마오난어(ʃha형), 몬-크메르어 강 방언 중 班洪(ʃha형), 馬散(ʃha형), 岩帥(ʃha형)에 ‘차’가 la형이 아닌 ʃha형이 나타나거나 두 가지 형태가 모두 나타는 경우가 관찰된다. 몬-크메르어 각 방언을 예로 보면, la형은 雲南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非 la형은 雲南 북서부, la형과 非 la형 두 가지 형식은 이 두 지역의 중간 지역에 분포한다.

이러한 언어학적 증거들은 한어 ‘차’ 어휘가 일방적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후 국가 주도의 차 문화가 확립되면서 다시 소수민족 언어에 역으로 한어형을 전파하는 ‘양방향성’을 띠었음을 보여준다.

40)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성모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초보적인 제안이며, 향후 운모와 다른 음운 대응 관계도 함께 고려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41) <표5>에서 <표7>을 참고하십시오.

(예) ‘차’ \*la형 언어 간 언어 접촉과 전파 과정 II<sup>42)</sup>



한어계 非 la형 어휘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차마고도의 성격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宋代 이후 중국 왕조는 북방 민족을 견제하고 군마(軍馬)를 확보하기 위해 차마무역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켰다. 특히 四川省 雅安이나 雲南省 大理, 麗江에서 티베트 라싸로 이어주는 북부 및 간선 루트는 역대 왕조가 차마사(茶馬司)를 설치하고 엄격히 관리했던 곳이었다. 宋代에는 成都에 ‘都大提舉茶馬司’를 설치하여 천장(川藏) 무역을 통제하였고, 明代에는 秦州, 河州 등으로 차마사를 확대하여 서북 지역의 무역망을 관리했다. 清代 康熙 연간에도 雲南 北勝州에 차마사를 설치하는 등 국가 권력은 끊임없이 이 경로에 개입했다.

결론적으로, 四川 서부의 雅安, 康定 등이나 雲南 북부 大理, 麗江 등 주요 교역 거점 도시에서 토착어형(\*la형) 대신 한어형(非 la형)이 우세하거나 혼용되는 현상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차마고도가 단순한 민간 교역로를 넘어 국가 주도의 관설 무역로로 편입된 역사적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점선 화살표는 실선보다 늦은 시기의 접촉을 나타낸다. 이러한 다양한 시기 층위의 접촉에 의해 소수민족 언어에서 차를 나타내는 어휘가 la형과 非 la형(ɬa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어의 영향을 받은 소수민족 언어는 非 la형(ɬa형)으로 나타난다.



〈사진〉 四川省 雅安市 名山茶馬司 유적지(저자 촬영, 2023.08.31.)

차마사(茶馬司)가 설치되고 한족 관리와 군대가 상주하며, 대규모의 ‘관차(官茶)’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한어의 ‘茶(非 la형)’는 강력한 상층어로서 기능했다. 따라서 북부 루트의 언어 층위는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차마사 설치 지역)와 한어형 어휘의 확산 범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정확히 중첩됨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 전파가 순수한 언어 내부의 기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교역 시스템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재편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 5. 결론

본고는 汪鋒·魏久喬(2017)의 어휘 데이터를 지리·역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차마고도 교역로 상에서 ‘차(茶)’ 어휘가 어떻게 전파되고 분화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차마고도는 운남(滇), 티베트(藏), 사천(川)을 잇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교역망이다. 이 지역은 한어, 티베트-버마어, 타이-카다이어, 몬-크메르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협곡과 산맥을 따라 띠 모양으로 접촉하며 복합적인 융합 양상을 보이는 독특한 언어 공간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차마고도 지역의 언어 접촉은 다음과 같은 경로별 이원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첫째, 남부 내륙 교역권(운남 남서부)에서는 토착 어휘형인 la형이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어의 ‘차’는 원시 티베트 버마어에서 ‘잎’을 나타내는 어휘 형식 \*la와 어원 관계가 있는데, 원시 티베트 버마어 ‘잎’이 ‘차’로 의미변화가 발생한 이후 한어로 차용되었다. 또한, 원시 티베트-버마어의 ‘잎(\*la)’에서 ‘차(\*la)’로 의미가 전용된 이 형식은 이어(Yi)에서 다이어(Dai), 다시 몬-크메르어(Mon-Khmer)로 차용되었는데, 이는 한족의 정치적 개입 이전에 형성된 소수민족 간의 자생적 차 교역 네트워크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북부 및 간선 교역권(사천-티베트, 운남 북부)에서는 한어계 tsha/cha형 어휘가 수직적으로 침투하여 기존 어휘를 대체하거나 공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세계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cha’ 형식은 후대 한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 연구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라 송대 이후 ‘차마사(茶馬司)’ 설치와 관설(官設) 무역로 확장이라는 국가 전략의 결과임을 역사적 사실과의 대조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사천 서부나 운남 북부의 거점 도시에서 나타나는 한어형 우세 현상은 차마고도가 국가의 길로 편입된 역사적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대 한어의 ‘檳, 設, 瓜蘆’ 등 다양한 이명(異名)들이 소수민족 언어와 높은 음운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초기 한어가 오히려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茶’와 ‘茶’ 뿐만 아니라, ‘檳, 設, 瓜蘆, 臯蘆, 過羅, 枸羅’ 등 고대 한어에서 차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티베트 버마어, 타이 카다이어 등 소수민족 언어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은 차마고도 지역에서 발생한 한어와 소수민족 언어 간 언어 접촉과 ‘차’의 전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언어 접촉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차마고도의 언어 접촉이 일방적인 漢化 과정이 아니라, 시기와 경로에 따라 ‘토착어의 수평 전파(\*la형)’와 ‘한어의 수직 전파(\*cha형)’가 교차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분포하며 접촉이 이루어진 차마고도 지역 언어의 '차'의 초기 어휘 유형 분석과 접촉에 대한 분석은 언어의 전파와 확산, 문화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차마고도 지역의 언어 층위는 단일하지 않다. 차마고도의 언어 지형은 단일 층위가 아니라, 기층에 존재하는 토착 민족 간의 수평적 교류(\*la형)와, 상층에 덧입혀진 국가 주도의 수직적 확산(\*tsha형)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임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어휘 데이터와 역사적 경로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차마고도가 단순한 교역로를 넘어 언어와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문명 교류의 장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參考文獻

- 노혜정(2023), 「의미변화, 언어 접촉, 어휘전파 — \*la ‘차(茶)’의 기원과 전파」,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3輯; 汪鋒·魏久喬(2017), 「語義演變、語言接觸與詞彙傳播——\*la“茶”的起源與傳播」, 『民族語文』 第05期.
- 연호탁(2016), 「唐朝 중국과 吐蕃의 茶馬交易」, 『차문화산업학』 33.
- 양세욱(2009), 「‘茶’에서 ‘tea’까지: ‘茶’類 어휘의 언어분포」, 『중국문학』 61.
- 양세욱(2018), 「‘茶’의 漢字音 /다/와 /차/에 대한 재해석」, 『중국문학』 96.
- 趙紀貞·送學俊(2004), 「韓中 차문화 교류 고찰」, 『중국문화연구』 3.
- 常竑恩(1986), 『拉祜語簡志』, 民族出版社.
- 陳保亞(1992), 「論茶古道的歷史地位」, 『思想戰線』 第1期.
- 陳保亞(2004), 「論茶馬古道的起源」, 『思想戰線』 第4期 第30卷.
- 陳保亞(2005), 「茶馬古道-橫跨世界屋脊的人類文明傳播紐帶」, 『科學中國人』 第12期.
- 陳保亞(2010), 「茶馬古道：世界屋脊的終極征服——紀念茶馬古道徒步考察和命名20周年」, 『科學中國人』 6.
- 陳保亞(2016), 「茶馬古道與鹽運古道、絲綢之路的關係——基於詞與物的古道類型學研究」, 『思想戰線』 第6期 第42卷.
- 陳保亞·袁琳(2014), 「一條橫貫歐亞大陸的北方茶馬古道——基於chaj讀音分布的語言地理學證據」, 『思想戰線』 第1期 第41卷.
- 陳士林·邊仕明·李秀清編(1985), 『彝語簡志』, 民族出版社.
- 陳宗懋(1992[2005]), 『中國茶經』, 上海文化出版社.
- 陳宗懋·楊亞軍(2011), 『中國茶經』, 上海文化出版社.
- 黃布凡 主編(1992), 『藏緬語族語言詞彙』, 中央民族大學出版社.
- 董含春·丁以壽·宛曉春(2018), 「國際貿易視野下茶葉之路與絲綢之路比較研究」, 『南京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18(04).
- 李炳澤(2002), 「茶由南向北的傳播」, 『語言與民族物質文化史』, 民族出版社.

- 李道勇·聶錫珍·邱鏗鋒 編(1986), 『布朗語簡志』, 民族出版社.
- 李方桂(1976[1980]), 「幾個上古聲母問題」,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 李錦芳(2005), 「茶稱“檳”、“皋盧”語源考」, 『古漢語研究』 3(68).
- 李永燧(1986), 『哈尼語簡志』, 民族出版社.
- 梁敏·張均如(1996), 『侗台語族概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羅常培(1950[2017]), 『語言與文化』, 吉林出版集團股份有限公司.
- 木霽弘·陳保亞·李旭·徐湧濤·王曉松·李林(1992), 『滇藏川“大三角”文化探秘: 茶馬古道 研究』, 雲南大學出版社.
- 孫宏開(2009), 「絲綢之路上的語言接觸和文化擴散」, 『西北民族研究』 第3期.
- 孫宏開·胡增益·黃行(2007), 『中國的語言』, 商務印書館.
- 汪鋒(2011), 「從漢藏語言看酒文化圈與茶馬古道」, 『科學中國人』 第10期.
- 汪鋒(2013), 『漢藏語言比較的方法與實踐』, 北京大學出版社.
- 汪鋒(2016), 「從漢藏語言比較看茶馬古道的演化——以漢、白、彝語比較為基礎」, 『思想戰線』 第6期 第42卷.
- 汪鋒(2025), 『茶的前世今生——從語言學的角度看』, 北京大學出版社.
- 汪鋒·魏久喬(2017), 「語義演變、語言接觸與詞彙傳播——\*la“茶”的起源與傳播」, 『民族語文』 第05期.
- 喻翠容(1980), 『傣語簡志』, 民族出版社.
- 鄭張尚芳(2003), 『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2012), 『中國語言地圖集: 少數民族語言卷』, 商務印書館.
- 中央民族學院少數民族語言研究所 編(1985), 『壯侗語族語言詞彙集』,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中央民族學院少數民族語言研究所 編(1987), 『中國少數民族語言』, 四川民族出版社.
- 周耀文·羅美珍(2001), 『傣語方言研究』, 民族出版社.
- 周振鶴·遊汝杰(1986[2015]), 『方言與中國文化』, 上海人民出版社.

- Baxter, William H., and Sagart, Laurent(2014),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nedict, Paul K.(1972), *Sino-Tibetan: A Conspect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edict, Paul K.(1976), "Rhyming dictionary of Written Burmese". *LTBA* 3.1:1-93.
- Björverud, Susanna.(1994), The phonology of Lalo. Paris: Paper presented to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ino-Tibetan languages and linguistics.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8.
- Bradley, David(1979), Proto-Loloish., *Scandinavian Institute of Asian Studies Monograph Series*, no. 39.
- Chou Fa-ka(周法高)(1972), Archaic Chinese and Sino-Tibeta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5.1:159-237.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9.
- Diffloth, G(1977), "Mon-Khmer initial palatals and "substratumized" Austro-Thai", *The Mon-Khmer Studies Journal*, vol. 6, pp. 39-57.
- Fraser, James Outram(1922), *Handbook of Lisu (Yawyin) language*. Rangoon: Superintendent Government Printing
- Huziwaru Keisuke(2008), Chakku-go no kijutsu gengogakuteki kenkyuu [A descriptive linguistic study of the Sak language]. (unpublished ms. contributed to STEDT).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9.
- Kato Takashi.(2008), Linguistic survey of Tibeto-Burman languages in Lao P.D.R. Tokyo: ILCAA.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8.
- LaPolla, Randy J.(2010), "Language Contact and Language Change in the

History of the Sinitic Language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

- Li Fang-Kuei(李方桂)(1976), "Sino-Tai", *Computational Analysis of Asian and African Languages*, 3: 39-48.
- Luangthongkum, Theraphan(2013), A view on Proto-Karen phonology and lexicon. (unpublished ms. contributed to STEDT).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8.
- Ma Linying and Walters, Dennis and Walters, Susan(2008), Nuosu Yi – Chinese – English Glossary.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Southwest University for Nationalities.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8.
- Marrison, Geoffrey Edward(1967), The classification of the Naga Languages of north-east India. Ph.D. Dissertati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2 volumes.
- Matisoff, James A.(1972), The Loloish tonal split revisited, *Research Monograph* No. 7.
- Matisoff, James A.(1978), *Variational semantics in Tibeto-Burman: The 'organic' approach to linguistic comparison*. (OPWSTBL, 6). Philadelphi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20.
- Matisoff, James A.(1991), "Sino-Tibetan Linguistics: Pres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Annual Reviews Inc.), 20: 469-504.
- Matisoff, James A.(2003), *Handbook of Proto-Tibeto-Burman: System and Philosophy of Sino-Tibetan Reconstruction*, Lo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chaud, Alexis.(2006-2009), STEDT deposit (version 1, 2011) of original materials collected in the Yongning plain (Yongning Na) and in Muli's

- Xiangjiao township (Laze). (unpublished ms. contributed to STEDT).  
Accessed via STEDT database <<http://stedt.berkeley.edu/search/>> on  
2024-02-18.
- Pelkey, Jamin.(2011), “A Comparative Phula Lexicon: Phola, Phuza, Muji,  
Phowa, Azha”, *SIL Language and Culture Documentation and  
Description*, 18.
- Pittayaporn, Pittayawat(2009), Phonology of Proto-Tai.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nguistics, Cornell University.
- Sagart, L.(1999), *The Roots of Old Chinese*,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chuessler, Axel(2007), *ABC Etymological Dictionary of Old Chines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eidert, Alfons K.(1987), “Tibeto-Burman tonology: A comparative account”,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Vol. 54.
- Glottolog(<https://glottolog.org/>)
- STEDT Database(<https://stedt.berkeley.edu/~stedt-cgi/rootcanal.pl>)

## Abstract

### Language Contact in the Tea Horse Road Region and the Dual Diffusion of the 'Tea' Lexeme

— Focusing on a Geolinguistic Reinterpretation

Roh, Hye Jeong

This paper reinterprets the lexical data from Wang Feng and Wei Jiaoqiao (2017) and Wang Feng (2025) from a geograph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analyzing various language contact phenomena centered around the Tea Horse Road. Specifically, it aims to distinguish the Tea-Horse Road trade routes into the 'Southern Inland Trade Zone' and the 'Northern Main Trade Zone,' and to clarify how the distribution of 'tea' vocabulary within each zone corresponds to actual historical trade patterns. While the lexical form for 'tea' in world languages is generally derived from the Chinese character '茶', languages distributed within the Tea-Horse Road region of China, such as Tibeto-Burman, Tai-Kadai, and Mon-Khmer, exhibit a pattern where the indigenous 'la'-type form coexists with the Chinese-derived 'tsha'-type (non-la) form, or diverges regionally. Analysis in this study confirms that within the southern trade sphere centered on southwestern Yunnan, the la-type vocabulary, derived from the Proto-Tibeto-Burman 'leaf (la)', spread horizontally among ethnic groups. This suggests the existence of an indigenous trade network formed prior to Han Chinese involvement. Conversely, in the northern trade sphere connecting Sichuan and Tibet, vocabulary derived from the later Han Chinese 'tsha' type predominates. This paper interprets this as a result of state-led vertical language diffusion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ea-Horse Office' (茶馬司) and the expansion of government-sponsored trade after the Song Dynasty. Furthermore, the high phonological similarity between ancient Chinese tea-related variants—such as '檟, 設, 瓜蘆, 皋蘆'—and their equivalents in minority languages indicates that early Chinese itself was influenced by these languages. This demonstrates

that linguistic contact along the Tea-Horse Road was not a one-way Sinicization process, but rather a dynamic interplay where ‘upward diffusion of indigenous languages (\*la)’ and ‘downward diffusion of Chinese (\*tsha)’ overlapped, varying by route and period.

**Key words** : Tea Horse Road, Tea, Language Contact, Geolinguistics, Tibeto-Burman Languages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
--